

<이유가 있어서 진화해_는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이게 되야	저는요, 생물학에 관심이 많습니 _다 그래서 알아볼겸,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책을 소개해 줄거예요. (이미 읽었지만) 지금은 육학년 이나 먹었으니, 더잘알거 _{예요} 그림 바르게자~
가 운 데	2단계 중 거 리	<p>몇 마리만 소개해 해줄게요. 고래부터 설명해 볼까요? 고래는 원래 조상은 땅 위에서 살은 달이 복슬복슬한 달마하 포유류였어요, 바로 파키세투스 라는 신생대 고제3기 에로세 전기 에살았어요. 육식이지요. 그 다음 암볼로 세투스라는 예는 수영을 어느 정도 할수 있었고, 그 다음 바실로사우루스 > 등등 조상을 걸으며 지금에 돌래, 고래가 탄생했답니다. 그리고 또다른 동물로는 오제화9르 터가시아 라는 신생대에살았던 이 태와 3m주는 지금에 카피바라 라는 커다란 1.05~1.35m짜리 귀여운쥐로 진화 했고, 게가 태리움이라는 6m짜리 포유류는 지금에 나무늘보가 되었어요.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진화 해서 지금에 모습을 되찾아 살고 있어서 신기해요. 물론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등 때문에 멸종한 예들 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잘 살고있는 예들은 그저 고마워요. 왜냐면 우리가 얻는 식품 (우유, 꿀, 고기등)이 거의 동물에게 나온 자원이니 가만요. 진화라는 것은 놀라워요. 예를 들어 찰스 다윈이 조사한 갈라파고스 새들은 먹이 종류에 의해 부리 두개골이 바뀌지요. 그리고 유인 원(침팬치, 고릴라등 고릴라등 원숭이를말함)은 지금 계 속 진화 하고 있어 지금 그석기 시대에 접하고 있다고 해_는 있다고 해 <u>있다고 해</u></p>
끝	4단계 느 림 마 침	<p>자연에 힘은 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조 고기리, 고래등 많은 동물을 잡아 그 수가 많이 줄었어_요. 멸종한 예들도 있지만 저등 동물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조상들이 열심히 진화해 탄생한 아기들인데, 착각에 게 사냥당하는게 억울하거_{예요} 제가 쓰레기 분리하 고 버리는것, 음식 남기지 않기, 재활주, 장부등 사지않는 지포력 이 실천 되었으면 좋겠어요.</p>

5월

김도진

< 빨간 구두와 바람 센들 > 을 읽고 나서

<p>처 음</p>	<p>1단계</p>	<p>처음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독해선생님 께서 수업할 내용이라 하여 책을 읽어오라 해서 읽었는데 꽤 나쁘지 않은 내용이었다.</p>
<p>조거 의 가 운 데</p>	<p>2단계</p>	<p>팀은 생일 선물로 아버지와 여행을 가는 것이였다. 그래서 두사람은 이른 아침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산골 마을로 여행을 시작 하였 을 까지 걸어갔는데 엄청난 마을이 있었다 아버지가 구두 수선할 것이 이라고 하자 있다고 해서 음식이랑 하루 갈 수 있는 방을 내다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에 다리를 건너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람이 다리를 건너 라가 넘어졌다. 바지가 떨어서 마를 동안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물을 끓여 먹어 부탄해 먹이 없나 물어도 없 하니 길가에 담요를 꺼내 깎아서 잤다 다음날 기차역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한테 여행가서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하였는데 높은 방이 되어 말하지 않고 잘려 있었지만 팀이 글을 찾으려고 요라고 말을 하였다. 바로 지금내가 그 이야기를 마무리 하려고요. 그래서 아빠가 각 생각 했다고 했다. 행복한 결말이었 으면 좋겠다고 하여 노심보화라고 했다 각자라고 인사를 하여 스포츠장에 도착했다. 팀이 여행을 통해서 나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p>
<p>다 짐 끝</p>	<p>3단계 노심보화 다짐 4단계</p>	<p>나도 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야겠다. 그리고 팀과 같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 추억을 쌓아 올리는 시간을 가져 야겠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과 여러 사랑들과 속마음을 배우게 되었다.</p>

Handwritten signature



6학년 8반 이름 :

< 6.25 전쟁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한 친구가 영어 보라해서 한 번 읽어보았다.
가운데	2단계	이책의 줄거리는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해서 일어나게 6.25 전쟁이 시작되어 사람들은 대피를 하면서 한강인도교를 건너야 하는데 국군이 이다리를 파괴하여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부산, 대구, 마산, 포항 제외한 땅이 배앓었다 결국 북한에게 밀렸지만 막아서 원수에 인천상륙작전 덕분에 서울을 탈환하고 백두산까지 올라와 기세를 몰아 불어내며 중공군이 6.25 전쟁에 참가해서 결국 현재의 대한민국이 됐다.
	3단계	<p>읽고</p> <p>이 책을 읽으면서 6.25 전쟁을 했을 때 우리나라를 지키던 국군들이 대단한 점이다. 만약에 내가 국군이었던다면 인천상륙작전을 아주 더 성공적으로 했을 것 같다 그리고 내 생각인데 인천상륙작전보다 속추가 더 성공적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싸우다 돌아가신 분, 또는 6.25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 한테 보상을 더 줘야 할 것 같다. 앞으로는 북한이 우리를 잠악하지 않게 준비와 무기를 단단히 준비해야겠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된 것 같다.</p>
끝	4단계	이 책을 읽고 나의 생각과 마음은 다시한 번 전쟁에 밀리지 않게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전쟁 참전 용사들 한테 엄청난 보상과 지원금을 주어야 할 것 같고 좋은 정경을 해야 할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으니까 전쟁이 없어야겠다.

[Handwritten signature]

6학년 8반 이름 : 최진화

< 국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p>내가 한국사에 관심이 많고 역사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p>
가 운 데	2단계	<p>어떤 한 성자가 말을 기지 못하니 왕은 그 말을 비웃고 말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아 왕을 결국 그 말을 깨닫게 했지마 실패해 죽음에 이르렀다. 그 말을 끝까지 전국 말을 변화해 버리고 거기서 국물이 나왔다. 죽음을 피제와 비난을 받았지만 하지만 국물은 나라를 재건으로 바르게 성공해 왕의 자리를 계속했다. 그리고 국물은 고국하는 나라를 세웠다.</p>
	3단계	<p>국물이 차를 타고 세상에서 왕의 아들 무명의 영웅 맞았을 것이다. 또한 국물의 마음이 불길 되어서 마음이 딱히 좋지 않 다. 그리고 국물이 줄을 삼을 장터에 등장하여 맞이했다. 왕의 국물의 재능을 인정해 왕의 자리를 넘겨주려의 국물을 죽을 장면에 인상 받았고 죽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물의 국물 국물을 달성해 하는 모습이 엄청 멋있었다. 그리고 나 국물처럼 죽을 달성할 수 있을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걱정되나도 마음도 들었다. 역시 국물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동시에 국물에 위대함과 대담함을 느꼈다. 그리고 나도 마음으로 국물처럼 느꼈다. 역사히 해야겠다. 그리고 또 느꼈다. 나는 국물이 정수 국물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느꼈다.</p>
끝	4단계	<p>국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국물 이루게다 생각하고 다짐했다. 그리고 국물의 끝으로 나도 본받고 생각하고 다짐했다. 또한 국물처럼 마음이 따뜻할것 발바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짐했다.</p>

6학년 8반 이름 : 장도욱

< 레리포터: 불의 잔 > 을 읽고 나서

이제 돈벌

처음

1단계

친구들이 읽고 있는데 재미 있어 보여서 가족들과
같이 도서관에 이 책을 샀다. 그리고 유튜브로 내용을 찾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이 책을 산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즐거

2단계

레리포터는 돈을 만나고 비록 가족을 만났지만
친구들은 배스드럼, 축구장, 도서관 옆에 있었다.
그래서 식객에게 저처럼 환경을 쉬었다
그래서, 돈, 네빌은 피곤해서 잠을 잤다.
그가 두근두근 대충 선으로 돌아와서 고전에게
전교생들 앞에 두는 두 명을 들어 올렸는데
학생들을 웃게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가운데

3단계

자기의 공을 이룬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의 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내 것이 작다면
책은 많이 읽고 많은 생각과 노력 어떤 책을
읽기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또 내일이 레리라면
불과 고음, 발음이 높고 길어야 한다. 나는 이 책이
재미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법 실험, 물리, 화학
이 있고 시우는 장면이 멋있어서 내가 읽은 책을
1등이다. 잘 공부생각 많이 있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이고 책 양이 많아서 내일이 읽을
책이 없으면 이 책은 나이를 위해 읽어야 할
좋은 책인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생각
과 느낌은

끝

4단계

내 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공을 이루는 게 목표이고
목표는 나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만나고 그 목표와 공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책을
나와 다짐
하고
난 뒤

장도욱

< 이 주 등 별 한 연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도시골에서 책을 찾다 이 책을 다 가 발견하고 제 미 있는 것 같아서 읽게 되었다
가 운 데	2단계	외도인종 앞면 치 영신 독서 이 주 미이 외성 마 씨 장애가 있는 형 종식의 종민이는 외성 마 씨 장애가 있는 형을 하지만 형은 종민이 그 일을 못 종민이는 오빠를 섬길 줄을 낸다 경 표 더 큰 자 한 종식이에게 동 아주머니들이 아이들한테서 선권이 종민이 종식은 아주머니들한테 기-는 것을 추천받고 거기서 종식은 종식이한테 마를 열게 된다
가 운 데	3단계	외성 마 씨 장애가 형 들기 같은데 극복 해 내고 장애민 수기 공모에 대상을 탄 종식이가 대단 해 보였다 불과 며칠 하던 종민이도 마음을 여는 것을 보니 재 감동 적이다 종민이에게 다가 가고 싶은 종식의의 마음을 몰라 종민이가 나쁜 거 같았지만 성감하면 나도 그렇게 같아 대단 해 보였다
끝	4단계	나도 종민이 처럼 다가가기 마음을 쉽게 열고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싶다 종식이처럼 어떤 때 포기 하지 않고 계속 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 싶다



< 하리포터 죽음의 खेल 1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배기	하리포터시리즈를 읽으면서 알게된 책중 하나.
가 운 데	2단계 즐거이	죽음을 면한자들이 곧 어둠을 걷는 것을 알자 비록 기이 위해 장, 개를 기르 의 포터 작전 포터를 제외한 나머지 포터는 변신하는 것, 진짜 하리는 하리포터 였 나에 사이드카를 타고 갔다. 나아는 중 이데 죽음 면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이드카가 떨어지고 사이드카에서 탈출할때 하리의 부하인 헤더리가 재주를 뽐내며 들어갔다. 나에 도착하고 뱀 다들 사람을 오지 않았다 그때 안쪽귀가 있는 레가 나타났다. 사이드카 재주를 사용했었다. 그리고 매드아이기가 요원중 사망. 비리에서 잡힌 빌과 플리크의 절친에서 하리는 배라는 사람을 변신해 있었다. 의외로 보는 사람 도리가 있었다. 그리고 뮤리엘 포드 형제나 도 있었다. 뮤리엘은 알바와 친했던 도지에게 알바의 아들/딸이 왜 한번도 질 박은 나가지 않았냐고 도지를 추궁한다. 도지는 아들이었다며 다들 비리나 중 페르디가 공원이 플리크 재주 형제와 죽음 면한 애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순화하는 탈출. 그리고 하리크 키리미랑도 빠져 나옴.
	3단계 느낌	하리포터 작전이 중요하면서도 재미있는 작전이었다. 그리고 도지가 귀 한 것을 알은 것과 매드아이기가 쫓겨 복이 하리포터가 죽은 것이 안타까 웠다. 헤더리가 너무 쉽게 죽은 것이 안타깝게 생각도 되었다. 그리고 탈출에서 뮤리엘 포드 형제나 너무 답답했다. 도지에게 재주 추궁하는 것 이데가 되었다. 재주가 쉽게 항복하게 되었다. 내가 주인공이었던 헤더리가 죽을때 더 슬프게 했다. 주인공에게는 첫 친구인 헤더리가 죽은 것이 큰 슬픔. 다들 슬프게 다들 슬프게 안락되었다. 싸움 들어 나는 정말 공을 느끼기 싫다. 원래 죽어 가는데서 더 가해워진다는 씁 이니 무엇을 더 할지 모르겠다. 도지 한 부하가 잘려나가는 건 상상지도 못할 공이 다들 슬프게 리타스카다가 큰 재능이다. 뱀도미가 큰 뱀도미에 대해 거짓말 책까지 쓴 재능이 난다. 내가 주인공이었던 리타 스테를 찾아갔을 때 죽은 주인공이 그를 찾게 대한다. 생명이 빠져 나옴 때 중 무서웠다. 만약 헤더리가 주인공을 할 줄 몰랐다면 생명이 친구를 비서에서 추궁하면 착한사람도 화낼수 있잖아 재주 추궁하지 않아야겠다 죽은 생명이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고 계속 살아야 지내는 걸 보니 현실이라는 두도 어떻게 되지 모르겠다. 죽을 걸 쉽게 생각하지 않겠다.
끝	4단계 다짐	하리 죽음에도움을 내 맞서 싸울 걸 뱀 나도 이제 용이 있는 사람이 되길 다짐했다. 하리는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는 걸 보니 나도 포기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주인공이 어떤 용이 다들 쉽게 실패 실패 하지 않고 용이 나도 이제 노력하겠다.

안소영

<블라인드 (2 유경의 생애) 생애사건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p>죽마를 읽다가 소년 책을 내서 포기할라 생각해 두서 몇 권을 봤다</p>
가운데	2단계	<p>돈을 벌려고 여러 유명작가 작품을 여러 권도 사서 읽었는데 소설가, 단편작가, 발타자, 대타자, 기원작, 근사, 연애인, 지방사, 이 모든 들어간건 완전히 소년을 읽고 난뒤가 와서 소년들은 읽지않는다. 그리고 듣 갔다. 엄청 큰 지렁이다. 그리고 숨을 참다가 시계침습하기 듣고 모두 침묵했다. 옆사람 뒤 모두 갇고 전원을 들춰냈다. 이게 보니까 내가 생각해 드려서 쓴다. 모든 게 연동시킬 바탕이 되고 다시 작가를 찾았다. 잠깐 동안 다시 작품에 대해 생각했다. 읽을 수 있으면 어떤 사 보지 않고 그날 저녁까지 읽었다. 이젠 연동시킬 수 없다. 이제 독자는 책을 다들 저러. 하지만 또다시 작가에게 잠이 들고 일어나서 방과후에 독자에 속했다. 그리고 이제 저러 되지만 이젠 독자를 꿈으로 세상에 상상의 현실로 볼 수 있다. 독자는 독자를 독자로 되지만 이젠 독자를 꿈으로 세상에 상상의 현실로 볼 수 있다. 독자는 독자를 독자로 되지만 이젠 독자를 꿈으로 세상에 상상의 현실로 볼 수 있다. 독자는 독자를 독자로</p>
끝	4단계	<p>돈을 벌려고 모르는 길로 가. 여러 타짜 게임에 가는 것은 좀 위험한거 같다. 그러니 난 돈이 없고 성공하려 할래도 마저야. 퀴리안 끌기. 그리고 끌기. 끌기. 끌기. 다시 다짐을 해보는거 같다! 그리고 이젠 내가 정말 부는다는걸 알군. 난 이젠 인연이 되리. 안드로. 그리고 다다라</p>

이름 : 진수연

< 스킴의 문단속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스킴의 문단속 애니메이션을 보고 재미있어서 책으로도 보고싶어 읽게되었다.
가 운 데	2단계	조용한 마을에서 이모와 살고있는 스킴. 어느날 들꽃길에 폐허를 찾는다는 남자를 만나다. 잠시후 스킴은 남자가 간 폐허를가서 문을 필사적으로 닫으려 남자를보고 도아서 문을 닫았다. 그 남자는 문을 닫는 일을 하는데 문을 닫지 못하며 크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리고 잠시후한 고양이가 남자를 의자로 변신시킨다. 지진을 막기위해 스킴과남자는 곳곳에 있는 문을 닫는다.
	3단계	이 책을 읽고나서 느낀 점은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렇게 못 할거 같다. 내가 잘못해서 문을 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못 할거 같은데 주인공은 용감하게 자신이 지진을 막는 일을 선택한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예전에 영화로도 봤던 기억이 나서 좋았던거 같다. 진짜 이런일이 일어나면 정말 무서울거 같다. 그리고 주인공은 아주 어려울때 엄마가 지진 때문에 죽었는데 정말 힘들고 슬펐을텐데 이겨낸게 멋진거 같다. 그리고 이 책은 뒤에는 계속 문단을 것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잘 지루해서 그 점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으로 보거 보다 더 재미있게 읽은거 같다. 또 읽을 때 내용이 쉽게 이해되서 읽기 좋은거 같다고 생각한다. 끝.
끝	4단계	나도 주인공처럼 무섭고 두려운일이 있어도 용감하게 잘 해결해야겠다.



6학년 8반 이름 : 하태경

< 수상한 식당 >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p>왜냐 수상한 책 시2B를 옮겨 보기도 하고, 도서관을 작성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을 때 이 책이 딱딱해서 읽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천 많이 해서 읽어 보았다.</p>
가운데	2단계	<p>어날 수상하게 생긴 친구아빠가 하시는 식당! 모든게 다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을 파헤쳐보자" 마침 그곳에서 트강같은 수업을 하준다고 해서, 비로 신났었다. 결국 왜 책을 보는데 겨우 남다리에 이상한 물체 같은게 있었다. 그걸 보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적이 아닌 아주머니가 "너 뭐하니?" 하는 순간 심장이 쿵 "저 비밀을 파헤치려고 있었어요" 라고 핑계를 돌렸단. 결국 비밀을 파헤치지 못했다.</p>
	3단계	<p>너무 오싹하다. 오싹해서 이 비밀을 풀어나가는 주인공이 내게 못했다고 생각했다. 이 마스터리 같은것 절대 생각이 도는 한테데 끝나나마 풀어서주고 하는 아주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풀어나갈려고 하는것만으로도 주인공이 내테데 노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다 재밌다는걸 깨달았다. 전에 좀 수상한 하원 어떤 책을 읽는데 흥미도 있고, 왜 수상한지 궁금증을 풀어서 나가는것도 흥미진진했다. 아줌마가 물어볼때 진짜 관적 느낌도있었다. 정말 친구아빠지가 하시는곳이니 재미라도 작동안한 친구사이 만 줄아 질기봐 걱정되진갔다.</p>
끝	4단계	<p>이 아주머니가 내가 마음에 나조 읽는것 같아서 책을 내내면서 좋게타면 난 재미있는데... 나의 다짐은 해, 비밀을! 이 책을 통해 내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u>흥미는 내것이였다.</u></p>

하태경

다들 유성우

6학년 8반 이름 :

< 블리컨트 1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처음에는 유성우가 블리컨트 시리즈가 재미있어서 이 책을 좋아해서 블리컨트 시리즈를 읽게 되었다고 해서 읽었다.
	2단계	대충 줄거리를 기억되어 그 줄거리에 대해 되풀이 하는 줄거리를 읽어서 재미있어하나 그 이야기를 스토리(?)라게 된 줄거리 중간에 반전이 생겨서 읽을 때 읽으면서 진짜로 그 인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근데 생각보다 쉽도록 장면들도 있어서 무서워 비밀 그런 장면들덕에 더 생생하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다.
가 운 데	3단계	마지막에 등장한 줄거리가 스토리가 변하여 읽는 데다가 제일 재미있었다. 특히 나도 다 읽었는데도 거기 나온 줄거리가 줄거리를 보면서, 읽을 때면 비현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줄거리의 사실과 이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누가 죽이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신나고 기쁜 책이다. 그리고 39권도 다 읽고 나서 누가 죽어가지 모르니까 책을 읽으면서 계속 된다. 그리고 그냥 읽으면 작은 힌트도 신선이 알려지니까 이 힌트를 왜 읽지 알 수 있었다.
끝	4단계	나도 이 책을 읽고 너무 재미있어서 세트로 사서 읽었다. 20권 39권 재미있다는 것이나 이 책은 유성우가 블리컨트 시리즈를 읽을 때 그 줄거리를 다 읽고 나서 블리컨트 시리즈를 읽을 때 재미있어서 읽었다. 다른 블리컨트 시리즈도 읽고 싶어진다.

< 늑대왕 로봇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p>옛날에 한번 읽어봤다가 재미 없어서 책상에 꽂아 놓았는데, 최근에 표지가 너무 맘에 들어서 홀린듯이 읽게 되었다.</p>
가운데	2단계	<p>늑대왕 로봇이라고 불리는 로봇과 로봇의 무리는 항상 나쁜 짓을 했다. 이유없이 가족을 죽이고, 늑거나 병든 가족은 먼저 앓고 항상 건강한 가족만 골라 먹었다. 이러다 보니 로봇의 현상금은 갈수록 올라갔다. 새남꾼들은 돈, 좋은 장비 등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로봇은 덩어리해서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던 로봇였다. 하지만 나(주인공 나)는 끝까지 노력한 결과 덕분에 늑대 한 마리를 잡았다. 그것은 로봇의 아내인 블랑카였다. 나(주인공 나)는 블랑카를 죽였고 그후 로봇은 냉정함을 잃고 날마다 비극적인 초대를 맞이했다.</p>
	3단계	<p>위와 같은 상황이었을때 로봇의 심사는 어떻게 될까? 정말 비참하다. 내 모습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새남꾼들은 내 현상금 때문에 날 죽이려고 하고 내가 아끼던 부하들은 내가 무력한 상황에 단치면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사람도 힘든데 동물이면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안간다. 난 처음에는 로봇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u>로봇목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생태계 피라미드가 유지되어야 늑대들을 잡으면 안된다</u> 생각했다. 마지막에 블랑카를 따라 세상을 떠난 로봇가 이해가 안갔는데 이제 이해가 간다. 로봇는 자신의 모습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살아서 복수해야지 왜 죽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서열이 엄청 중요하다. 서열 1위였던 로봇가 블랑카를 완정하게 해준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런 로봇가 살아서 복수를 할수 있을까? 복수를 한다고 해도 로봇가 사랑하는 블랑카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늑대왕로봇라는 제목의 뜻이 궁금했는데 이제 알것 같다. 로봇는 충분히 늑대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같은 나뭇잎 같지만 지혜로운 로봇처럼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한다. 꼭 연인간의 사랑 말고도 부모님과 나, 언니와 나 이런 사랑 말이다. 하지만 그사랑은 해피 엔딩일 수도 있고 세드 엔딩일 수도 있다. 이 중에서도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세드 엔딩을 맞이한 늑대왕 로봇을 소개해줬었다. 이 책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욕과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이야기 하고 있는것 같다. 앞으로는 해피엔딩 책 뿐만 아니라 이런책도 다양하게 읽어보고 싶다.</p>
끝	4단계	

강서하

< 시간 가게 >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p>시간 가게의 많은 이치는 시간에 대한 책을 살짝 좋아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또 내가 1년 전에 몇 번만 읽었다 하는데 이 시간 가게라는 책으로 다시 사귀는 스토리 읽힐 같 도 하여서 이 책을 골랐고 또 표지 아래에 여러 가지 꿈이 과 책들이 쌓여 있어서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이제 이 책을 스토리를 보겠습니다</p>
가 운 데	2단계	<p>죽은 공을 아는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엄마하고 산다 엄마는 윤아가 1등이여야 하는 생각만 하신다 하지만 전학을 오고 윤아는 수영이에게 1등을 놓쳤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 갔다 시간 가게라는 곳에 들렀다 윤아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고 거기서 이 시계를 사용할려면 행복 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했다 윤아는 학원으로 갔다 학원 에서 시험을 보기로 했다 윤아는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고 시간을 멈추었다 그리고 수영이를 만났다 그리고 천천히 그 시계 를 쓰자 기억이 사라졌다 윤아는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기억을 찾고 싶다 하고 기억을 찾으려 했다 윤아는 천천 히 우리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의 가게로 가서 시계를 복원했다</p>
	3단계 행복	<p>나도 윤아처럼 시간 사서 밖에서 계속 놀고 싶지만 나는 행복했던 기억들이 얼마 아바, 친구들 하고는 기억 들은 잃어버리길 싫다 나는 내 옆에 계속 얼마 아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엄마는 과학자여서 집에 늦게 오시지만 아바는 예전에 계셔서 주말에 만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기억이 할머니 하고 한 행복한 추억들만 조금 있다 근데 윤아가 얼마 를 위해 학원에 가서 1등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도 한 번 1등 하고 싶었지만 1등은 쉬운 줄 생각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도 윤아처럼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싶어 지기 싫어 했다 나는 학원을 많이 안 다니고 친구하고 놀고 싶어 했다</p>
끝	4단계 다행	<p>나도 행복했던 기억들을 어떻게든 저장하고 싶어 졌다 그리고 나도 얼마 아바, 할머니를 위해 공부도 잘 할 것이다 (수학만 집중) (영어는 좀) 어쨌든 그래서 좋은 회사를 다녀서 얼마 아바에게 돈도 주고 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좋은 생애가 전에 친구들 하고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놀 것이다</p>

그렇게

이렇게든

김서을

< 빨강 연필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옛날에, 전 학교에서 오빠가 활동 할 때 읽은 책이라, 그때 오빠 나와 나와 티웃느 서 읽기로 했다.
가 운 데	2단계	민호라는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수아의 유리 천사를 떨어뜨려 깨뜨렸다. 모두에게 의심을 받고 다음날, 책상을 보니 꼬서 쓴 빨강 연필 한 자국이 있었다. 마침 글 쓰기 시간이라서 민호는 그 연필로 글을 썼다. 그때, 연필이 꿈틀거리더니, 바깥 시간안에 본색을 글로 써냈다. 그날 밤, 민호는 남은 숙제를 하기 위해 빨강 연필을 잠깐 쓰고, 글을 완성했다. 그 글은 이탈리아 글이었고,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탔다. 다음, 이탈리아를 주제로 가족이였다. 민호 는 자신의 집에 만족하지 않았고 빨강연필을 사용해 거짓글을 썼다. 그 글로 인해 친구 재규와 싸웠고 재규가 대회에 나갈라는 걸 들었다. 민호는 그 대회에 나가기로 했다. 민호가 쓴 글이 본색에 올랐다. 대회가 끝난 뒤, 민호는 빨강 연필을 볼 길 속으로 헌졌다. 민호는 재규와 가족들과 이별했다. 그리고 민호는 글로 유명한 학교에 빨강 연필 없이 쓸 글로 불었다.
가 운 데	3단계	표지를 봤을 때, 상을 많이 받은 책이라 기대를 했다. 배경이 학교라 더 몰입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민호가 빨강 연필을 만난 건 정말 다행인 것 같다. 민호는 자신의 가족을 남과 비교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빨강 연필 사용 후, 가족의 마음을 더 이해한 것 같다. 글은 빨강 연필 닮아 크지만 바로 바뀐 민호도 정말 대단한 것 같 다. 나였으면 빨강 연필을 볼게 따지지 않고 몰래 간직해 두었고 썼을 것 같다. 마지막에 학이머리가 왔는데 이어지는 다음 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빨강 연필의 원래 주인 수규 왜 민호에게 그걸 갖는 지가 궁금하다. 민호가 수아에게 수아의 유리 천사를 깨뜨렸다고 고백한 장면과 오직 자신의 원으로 쓴 글로 학교에 붙은 장면 에 놀랐다. 수아에게 말을 안 했으면 더 친해지고 편한 사이가 될것같다고 생각 했는데 고백을 하고 나서 오히려 그런 사이가 되어서 놀랐다.
끝	4단계	민호의 자신을 믿는 마음을 볼 받고 싶다. 빨강연필 없이도 학교에 붙을 수 있다는 그걸 자신감이 정말 컸던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멋 졌다. 그런 모습을 본다고 싶다.

이금비

이름 : 오주아

<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언니와 엄마의 추천으로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었고 또 이번달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깊고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많아서 독서록의 주제로 고르게 됐다.
가운데	2단계	은유의 아빠가 ^{DPM}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보라고 해서 은유는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 당시 아빠에게 자존나 왔던 은유는 툴툴대며 편지를 써 미래로 보내주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데 얼마뒤 알수 없는 이유로 과거의 동명이인 누군가에게 편지로부터 단장이 온다. 그렇게 알게된 두 사람은 은유는 과거에 사는 누군가에게 서툰 답을, 과거의 누군가는 은유의 이혼한 엄마를 찾아준다고 한다. 편지 은유는 아빠가 너무 싫다고 말하자 과거의 누군가가 마음을 다스려주며 아빠와 더 사이도 좁혀진다.
	3단계	· 모든 사람이라 그냥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 무시하지 않고 은유를 도와준게 신기했다. · 또 나도 가끔 아빠랑 억울한 이유로 투타거리던 적이 있었는데 · 이 과거의 동명이인인 누군가 해줬던 말을 보고 · 아빠를 미워했던 내가 좀 후회되기도 한다. · 아빠한테 고맙다고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 이 책을 보며 나를 더 편안하게 할 줄 알겠고 그랬다고 · 느끼기도 했다. 이 책이 의미있는 책 인것 같아 · 읽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끝	4단계	나도 (과거)은유처럼 편지를 버리고 서로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 말하면 편지를 잘 읽고 보답할것 보답하고 존중하며 나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DPM

이름 : 서원제 ...

< 내 이름은 이강산 >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p>노수에서 책을 읽게 되었다! 다.</p> <p>~ 학원</p>
가운데	2단계	<p>강산이는 창씨개명을 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반대 하셔서 강산이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강산이는 창씨개명을 하고 싶어서 할아버지의 조부를 숨기고, 모든 것을 하였다.</p> <p>창씨개명을 하지 않던 강산이에게 슬픈 소식이 찾아왔다.</p> <p>창씨개명을 하지 않던 가족들이 위험하기 때문이다.</p> <p>결국엔 " 리노이에 코우자 " 이라고 지어주셨다.</p> <p>할아버지가 일보 이름을 지어주시고 난뒤 서상을 떠나셨다...</p> <p>물려 받은 조부를 다시 놓고 간 계획이었지만, 아버지는 혼란하고 하셨다. 하지만 천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p> <p>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이 생기까지 왔다.</p>
	3단계	<p>나는 창씨개명을 해야 살수 있는 그런 형비같은 느낌이 싫었을것같다. 그래도 창씨개명을 한 강산이는 미안하지 않았을것같다.</p> <p>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다.</p> <p>왜냐하면 가족이 떠나가기 때문이다.</p> <p>강산이가 학교를 갈 때 종종 할아버지 생각이 날것같다 "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나면 지금 하는 모든것은 거의, 못했겠다 " 그때를 우리나라의 발전이 커다란 걸 보여줄수 있는것같다!</p> <p>만약</p>
끝	4단계	<p>내가 만약 그 시절 강산이라면 조부를 숨기지 않고, 진지하게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부를 숨겨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슷하기도 하며, 조부를 보고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을 것입니다.</p>

< 강남 사장님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p><강남 사장님>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책의 그림이 많아서 그림작가님 그린 다른 책을 찾다 읽게 되었다.</p>
가운데	2단계	<p>강남 사장님이라는 책은 김지훈이라는 초등학생이 부모님께서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싶어서 초등학생 알바를 찾다 초등학생 알바는 안 된다고 해서 김에 가고 있는데 초등학생 알바를 구한다는 전단지쯤 보고 알바생이 되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고양이었다. 지훈이가 해야 할 일도 고양이 돌보기 털 빗기 등으로 고양이 케어 알바였다. 그리고 사장님은 유머러스한 고양이 유튜브를 봤다.</p>
	3단계	<p>고양이 사장님은 태어난 눈곱만큼 때부터 나에게 있어서는 책으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시기이니 부모가 없었다는 것과 혼자 자라느라 한참까지 열심히 살았다는게 대견한 거 같다. 지훈이도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게 아니라 세상에 너무 빨리 안겨졌다. <u>읽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다</u> 내가 죽으려 하면 눈 떠볼 때 부모가 없다면 먼저 부모님 댁에 찾아가 생사도 돌봐달라야 할게 사장님 처럼 사랑하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p>
끝	4단계	<p>고양이 사장님처럼 열심히 살아 자라나고 싶고 그리고 나도 고양이 알바라면 시도해보고 싶다. 이왕이면 예쁜 고양이로 알바면 좋겠다.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지훈이 처럼 부모님 일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p>

이름 :

< 외계인 편이권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난 편의점을 자주간다 그래서 편의점을 좋아한다. 도서관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다. 편의점처럼 외계인이 합쳐져있으니까 내 마음도 끌리고 신기해서 이 책을 골랐다
가운데	2단계	이 책이 좋거리는 두학년이 모에게 추천했다. '외계인들은 투명수컷'으로 편의점에 들어갔다. 외계인들도 리틀보스를 지구 음식에 놀랐다. 외계인 폭주레서머리를 사들여 리틀보스로 캐리코인사. 이 레서머를 판이 점점 늘리웠다. 서브로 두학년이 외계인을 태우고갔다. 레서머는 외계인을 팔아갔다. 레서머를 쿨러함에 넣고있었다. 외계인을 남지않게 헝크로했 이었다. 레서머는 외계인들에게 이상한 것을 팔아보았다. 레서머를 모에게 추천한 외계인을 태우고 캐리코인의 두학년들을 데웠다. 레서머는 외계인들을 구하고 다시 지구로 오는다.
	3단계	여기서 인생 끌었던 장면은 레서머 모에게 추천한 두학년들 타고 외계인들을 구하기가 인생이었다. 두학년들 타고 헝크로했 물리쳐서 지구로 그랑그랑도 인생 끌었다. <u>물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 레서머 마왕리</u> <u>했었다.</u> 그리고 헝크로했 전 켜 끌게로 풀린만큼 노가 있었다. 레서머가 외계인들을 구할때 거대한 간을 켜서 해서 스파이더 맨 인줄 알았다. 레서머가 끌을 수도 있는데 외계인 오구한게 파지 두리엔마왕리. 나도 내 동생이 외계인을 팔지않게 내 목숨을 바쳐라. 나도 물까지 포기하지않고 파자를 구한 나였던것 같다.
끝	4단계	나도 두학년가 끌려간다면 그 큰 레서머 생명을 구할권이 있다. 내 파자를 잘 숨길것이다. 레서머처럼 물까지 포기하지 않고 친구, 동생들을 구할것이다. <u>내리 안 팔기까지 물까지 도전하고 구할것이고 몇번</u> <u>이대로 계속되는 내가 되고싶다.</u>

6학년 8반 이름 : 남대현

< 우리 학교 별 책을 막아라! >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p>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이 책이 굉장히 재미 있고 우리 학교 내용이 재밌어서라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p>
	2단계	<p>이 책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일을 다루고 있는 법정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외교부 같은 여러가지의 일을 다루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한 책입니다. 또한 지금의 민주주의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 하고 있는 책입니다.</p>
가 운 데	3단계	<p>제가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국가 기관이 이렇게 많고 힘들게 해주는 다 관하는구나 너무 힘들고 많고 또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외교부 같은 여러가지의 일을 다루고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생하신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세를 갚라는 국민들이 무서워서 독재자를 감시하고 두려워서 세를 갚고 대단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걸 느꼈습니다. 또한 별 어떤 재하는 법인지 요즘 부자가 많이 태어나서 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 어떤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 전두환이 한 독재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p>
끝	4단계	<p>이 책을 읽고 저의 다짐은 우리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바램은 여러가지 부가 더욱 열심히 일하 고 나라가 좀더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p> <p>이상입니다.</p>

6학년 8반 이름 : 김준수

< **국 립**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p>내가 이제껏 읽게 된 계기는 바로 학원 선생님의 권유 때문이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이 재미있지 않겠냐만 가 봤자 만만상 하고 난후의 느낌은 달랐다. 이 책을 감상문이 쓴다.</p>
가 운 데	2단계	<p>국립에서 근무하는 아나나 포스트맨이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국립을 피해 동생 물러와 피한 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나는 물러와 함께 계속 피난을 하면서 물러가 사귀고 인해 목숨을 잃는다. 아나는 포스트맨 가족의 도움으로 키싱겐에 도착했다. 그러나 아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다시 물러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병원에서 만나게 된다. 시간이 지나고, 아나는 포스트맨 집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아나를 찾아온 이웃을 보내며 이야기가 끝난다.</p>
	3단계	<p>이 이야기는 왜곡된 볼 원전 사고를 배경으로 한 듯 보인다. 인종차별, 폭력과 핵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책이기도 하다. 나는 이 책을 보고 핵의 위험성, 무책임한 정부, 무지한 사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왜 핵같은 위험한 것을 많이 쓰는 것일까요? 위험한 것도 위험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핵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슨 권위자가 된다면 적대 이런 사고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싶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 더 책임있게 보일 수 있지, 이런 일을 예방할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민들한테도.</p>
끝	4단계	<p>이 책은 사람들에게 핵의 위험성을 여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책이었다. 또한 나도 이 책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런 위험한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 생각한다.</p>

김준수

< 블라인드 유령의 집 살인사건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p>좋아하는 유튜버가 영상에 관해 책을 읽었는데 친구가 그걸 시켜 빌려 읽었다.</p>
가운데	2단계	<p>거액의 상금을 노리고 2인 1조로 다른 공포층을 가지고 있는 6명, 소자품을 내고, 유령의 집으로 들어간다.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움직이려 할 때, "뚝뚝뚝뚝" 소리가 나며 잠에 빠져든다. 6명의 사람들이 세 소리가 나는 서재로 들어간다. 서재로 들어가려 했지만 조류공포증을 앓고 있는 덕게 머고 가보니, 가이드가 죽어있었다. 6명의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있었다.</p> <p>조류공포증이 있는 덕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공룡 층으로 죽었는데, 조류공포증이 있는 덕게는 세의 것털이 같이 있는데도 죽었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공룡은 우를 안에 빠져 죽어있었다. 잠뜰, 라더, 숙현, 극별이 살아있었는데, 뚝뚝소리에 잠에들어 깨보니 천창 안에 갇혀있었고, 또 뚝뚝 소리에 잠에들어 깨보니, 잠뜰이 다른 인격으로 바뀌어 있었고, 경찰이 와 잠뜰은 잡히게 되었다.</p>
	3단계	<p>이 책을 읽고 나서, 먼저 시나리오를 잘 켜 것 같았다.</p> <p>그리고 잠뜰님도 자기 자신을 알맞게 처리했다는게 놀라웠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작화가 매우 이뻐서. 각기 다른 공포층이 있다는 설정에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 했습니다.</p> <p>호러 느낌이 나게 잘 흐르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미즐을 먼저 답을 보지 않고 푸는게 재미있었습니다. 퍼즐중에서는 밖에 있는 글자를 조합해서 "지킬 앤 하이드" 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색채공포증에 관련된 뉴스 기사도 흐름들었습니다.</p> <p>사람들이 자신의 공포증에 관련해, 죽는것도 아이디어가 매우 좋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냥 막당이 아니라, 지킬 앤 하이드처럼 이중인격자의 신한 모습이 아닌 막한 모습, 즉 다른 인격이 사건을 저지르고 다녔다는게 좋았습니다.</p>
끝	4단계	<p>나는 개백의 상금이 건이있어서 가지 말아야 겠다.</p> <p>이 책을 읽고나서 호러노자의 책도 재밌구나를 느끼고, 앞으로 이런 책을 읽고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p> <p>원래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것이라 읽고싶다는 느낌이 들었고 친구를 통하여 읽어봤는데, 이미 유튜브로 본 내용이어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유튜버와는 다른 장면이 여러 있었지만 색다른 느낌이라 재밌게 읽었습니다.</p>



이서건

6학년 8반 이름 :

< 송현방 암살사건 >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p>도사사이에 자를 그려서 기원대 송현방 암 살사건이라는 제목이 특이소설 같아서 마음에 들어 고르 게 되었다</p>
가 운 데	2단계	<p>왕의 사위가 된 나씨는 임금을 알현하다 기절한다. 언어나자 궁녀들이 정조처럼 애를 하는 것을 들었다. 영주에게 있는 서생에게 정조처럼 애를 들었다. 아내를 보던 중에 나씨가 정조처럼 정조에게 대해 얘기 했다. 왕에 관해 아파서 정조처럼 기절한다. 정조처럼 애를 들었다. 정조에게 대해 이야기 했 다. 정조가 남자에게 정조처럼 애를 들었다. 서생과 만나서 정조처럼 정조가 서생에게 정조처럼 애를 들었다. 정조에게 대해 이야기 했다. 정조 위와도 애를 한 애를 들었다.</p>
	3단계	<p>태종이 정조처럼 애를 하기 말라고 했다. 이 말을 아들은 나는 하룬이 일부러 숙종과 부왕을 정조처럼 애를 해 안중에 생각해보 있다. 숙종에게 숙종처럼 정조처럼 애를 아파서, 자신의 의지가 해로되면 자신의 입지가 늘어날까? 그런 정조 숙종을 가리 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방에서 정조 를 숙이 아들이 지금이 개민정이라고 정조 내내하면, 자기가 왕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조처럼 서생에게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조 인간이라면, 개민의 사자라고 생각되고 사 를 죽이는 일은 입원하면 된다. 내가 이 정조 안에서 느낀 것은, 정조 신기했다. 내내하면 부 어린 독에게 정조 사자라고 부르면 정조 기원을 하는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이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p>
	4단계	<p>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p>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정조 사자라고

이서건

이름 : 김수진

<

이수진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이수진 장군님 어떤 전투를 치렀는지 궁금해요 어떤 마크 남겼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전투 이후에 궁금해서.
가운데	2단계	이수진은 1546년 태어났다. 성년이 되자 이수진 장군은 여제비로 불리며 이광무 7년에 하연 이수진은 보성군수의 관직에 아나를 맡았었다 이수진도 공예가였던 무라에 동시해결 되었었다. 1590년 리서포정에서 함정으로 하연과 여제비 함입하자마자 마서 1사위서 아랫과. 하지만 3살은 당파 싸움으로 호랑스리원과. 1592년 4월 나에 정복과 그의 공산국이 왜국도의 싸움에서 패배했고, 실력으로 김이들과 호공경 등 해군기반 장대공 7. 몇가. 이수진은 여러군 지에서 이적재판 선과도 무한에 이수진도 화력 장비로. 이연은 양의 평명으로 내 장군으로 직격 되었고. 이수진도 명장처럼 진에서 이 적기방 자유 전투에 도움이 되었다.
	3단계	이수진 장군이냐 요가하고 자랑스러운 지냈는지 물어봐서 물어봐서 이기에 1등 훈장까지 받고. 포기하지 않고도. 몇달과, 이수진 장군이 북쪽을 방위해 싸우니 대적하라. 이수진 장군이 내 주장을 아무리. 1546년. 몇가. 몇이 자신보다 공산국의 싸움 위해 이 대적하라. 이수진 장군님이 무대 아래로 지켜 주시 감사하고 고맙다. 이수진 장군님이 왜국에게 신라군의 모함 때부터 장군이 지휘로 방위하고, 7년 상대 위해서 노력과. 이수진 장군님이 무라에 걸어서의 판치에게 패배 한게 대적하고 동강과. 이수진 장군님이 . 비록을 당하지 않은 것이 자제하고 노력과 이수진 장군님이 포기하지 않고 귀찮아도 일찍 자신도 리서관계 "명리교" 영으로 이적재판이 판치로 판치에게 싸움게 몇가. 몇가. 몇가. 몇가. 판치에게 싸움게 몇가. 몇가. 몇가. 몇가. 다 한 실과.
끝	4단계	

배웠다

배웠다

배지 않은 것이

김수진